

대학 음악실기교육 개선의 필요성

김형배

서울대 기악과 교수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모든 교육에 끼치는 영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음악대학이 창립된 지 근 오십 년이 가까워오지만 음악대학은 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조금도 적용하지 못했다. 과거와 같이 음악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음악인으로 인정해 주던 시대는 지났으며, 우리나라가 여러 방면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되는 이 시기에 이르러 음악대학도 현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적, 직업적인 음악가를 배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음악교육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도 결국 이런 전문적인 인식이 부족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음악교육제도는 음악가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충분히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거의 모든 음악대학이 종합대학 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에만 집중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음악은 다른 예술분야와 같이 인간 문화역사의 구성분자이며 동시에 독특한 형태의 지식이다. 그러므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연구되고 공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음악 중에서도 실기부분은 그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특별히 다루어져야 하

는데도 그 전문성과 가치가 고려되지 못한 채 획일적인 교육제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음악교육이 전문성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시설 및 인력 등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데 곧 시행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개선안, 즉 음악가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 음악가들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약하고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사람이 서양음악을 충분히 이해하고 음악적 소질이 있으며 또 한국 음악계의 장래가 매우 밝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렇게 전문적인 음악인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모두가 해외에서 어려서부터 음악공부를 한 사람들이며 한국에 있는 음악대학 졸업생들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한국 음악대학은 전문성이 결여되고 입학 자체가 마지막 목적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을까? 음악실기 교육은 어려서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현재 환경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각자의 개성을 살리며 위대한 예술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선

택한 분야를 충실히 공부하며 자랄 수 있을까? 이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정확히 관찰하고 진단하지 않으면 어떠한 개선책이라도 일시적인 치유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음악의 특수성은 다른 학문분야와 비교할 수 없다. 음악은 말이나 글로 설명될 수 없고 그 자체를 느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또 음악은 음악적 언어로 표현되고 전달되므로 그 이외의 깊은 지식이 음악을 이해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음악공부는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실기교육은 직접 음악을 소리화하는 과정이므로 고도의 집념과 연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기 교육은 음악가로서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런 음악교육의 독특성 때문에 체계적인 일반교육 제도 안에 음악교육을 제도화하기가 어려우므로 여러 나라에서는 분리 교육시키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일반 중학교 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음악대학(국립음악원이나 City Conservatory)으로 진학할 수가 있다. 이수과정은 8년제이고 최소한의 고등학교 교양과목도 포함되어 있다. 입학은 실기시험만으로 결정되며 학생들은 연주거나 음악 교육자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입학 후에도 연주과정에서 교육과정으로 이 전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에서도 연주과정 수준의 실기시험을 치르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각 음악대학은 예비학교를 두고 있고 권위있는 음악학원도 주변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자유롭게 음악공부를 할 수 있다. 음악학은 종합대학에 있으므로 그 대학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 진학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각 도시마다 음악대학이 설치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후 실기시험만으로 진학할 수 있다. 실기 연주를 전공할 수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 음악교사가 되기 위한 음악교육 과정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교육 과정을 선택할 경우 음대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에 관한 과목들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종합대학에서 이수해야 한다. 이 두 과정은 각 과정이 요구하는 조건만 맞으

면 자유로이 바꿀 수 있으며 졸업시에는 디플롬을 취득한다.

일본도 실기음악의 조기교육 필요성을 인정하여 어려서부터 집중적인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각 음악대학은 부속음악고등학교나 어린이를 위한 음악교실(중학교 3학년까지), 그외에 입시를 위한 특별강좌를 주관하는 기관 등을 갖고 있다. 대학입학전의 음악 기초교육은 초·중학교 재학기간 '음악교실'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각 대학 부속고등학교로 이어져 충분히 집중적인 음악공부를 할 수 있다. 즉, 음악교실, 음악고등학교, 음악대학으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음악실기와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단계의 진학은 실기와 음악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결정한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반영비율은 아주 낮다.

미국은 개개인의 능력을 자기에 걸맞은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개발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만큼 조기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대학 이전에는 학생이 원하는 선생님 밑에서 개인지도도를 받으며 일반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또 주변에 있는 음악학원이나 음대에서 주관하는 예비학교에서도 실기지도 및 기본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이 주관하는 예비학교는 미국내에 아주 극소수이며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대학으로 이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초·중·고등학생이나 일반을 위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예비학교를 졸업해도 다른 학생들과 같이 실기시험을 통해서만 대학진학이 가능하며 자동진학이나 어떤 특별한 배려는 있지 않다. 음악대학은 줄리아드나 맨해튼 음대 같이 단과대학으로도 존재하고, 인디애나 대학 같이 종합대학 안에 있기도 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음악학사나 석사과정을 두고 있으며 연주중점학위, 음악교육중점학위, 작곡이론학위 등으로 나누어진다. 또 줄리아드, 맨해튼, 피바디 같은 컨서버토리 형태의 대학에서는 음악학위 이외에 연주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아티스트 디플롬도 수여한다. 대체로 학위는 전공과 전공과목

그리고 교양과목을 이수하면 부여되고, 디플롬 과정은 전공과 전공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음악 실기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기에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가장 문제되는 점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학과에 치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음악대학 입시에 학과 성적이 치명적으로 경쟁 반영되기 때문에 학과를 필요 이상으로 공부해야 한다. 특히 중·고등학교 나이는 가장 예민하고 활기차며 꿈에 젖어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이 때에 음악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가 거의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시기에 선택한 실기부분에 집중하기는 커녕 학과에 매달려 겨우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공부밖에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음대 지망생들도 다른 학과 지망생들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1학년부터 학과 과외공부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회에 참석한다거나 음악에 대한 서적을 개인의 흥미위주로 읽는다거나 또는 개인의 연주능력을 충분히 개발해서 무대경험을 쌓는다거나 하는 음악가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을 이행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다.

음악교육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면 대학입학 전과 입학 후의 두 과정이 연결되게 음악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상해야 한다. 즉, 대학 전에 충분히 음악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에서도 현재의 획일적인 한 가지 프로그램만 주장하지 말고 다양한 진로를 개발하여 각자가 능력과 흥미에 맞는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학력평가가 음악대학의 당락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 음악적으로 선진국인 나라들을 살펴보면, 음대 진학에 필요한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그와 동일한 자격이며, 음대에 들어가기 위하여 학과 공부를 과외까지 하며 밤을 새워서 공부해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입학한 학생들이 다른 나라 음대생보다 더 지적이고 더 교양있고 또 나아가서는 더 훌륭한 음악가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음대 입시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

체로 실기 50%, 학과 50%를 반영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실기시험은 3~4개월 전에 시험곡을 발표하며 학생들은 이 곡목들을 연습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실기시험은 하루만에 다 치르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각 분야의 지망생들이 약 100명 내외라고 가정해서 실기시험곡은 5~6분이 넘지 않게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짧은 곡들을 3~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그야말로 아주 재주가 없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하게 된다. 즉, 1등과 100등의 차이는 현저히 있을지라도 입학권 안에 들어 있을 중상위권 학생들끼리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여기에 학과 성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실기가 우수하고 학력이 중간인 학생은 학력이 우수하고 실기가 중간인 학생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대에 진학하려면 평소에 실기는 보통으로 유지하고 학과에 치중하다 마지막에 실기과제곡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를 이런 태도로 보낸 학생들이 어떻게 전문 음악인이 되며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겨룰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겠는가? 이는 현 시점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벌써 재능이 있고 철저히 음악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은 거의가 중학교 때 외국에 가 있는 실정이다.

대학입시제도가 대학 전의 공부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한편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의 개선도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 음악대학은 전문성 없는 일반 음악학사학위과정만 설치되어 있다. 대학교 4학년 1학기 중간교생실습을 통하여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나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전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학위에 집중적으로 공부한 분야를 기능별로 명시함으로써 각 개개인의 흥미와 능력에 맞추어 세분화된 전공을 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티모어에 있는 피바디 음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레들은 다음과 같다.

(Bachelor of Music Degree)

- Performance Majors
- Composition Majors
- Music Education Majors
- Performance/Recording Arts and Science Majors

(Master of Music Degree)

- Performance Majors
- Composition Majors
- Electronic and Computer Music Majors
- Music Criticism Majors
- Music Education Majors
- Music History Majors
- Ensemble Arts Majors

(Doctor of Musical Arts Degree)

- Performance Majors
- Composition Majors
- Conducting Majors

위에 구분된 학위 이외에도 연주만을 중심으로 하는 Performer's Certificate, Graduate Performance Diploma, Artist Diploma, 그리고 Professional Studies Program 등이 있다. 우리도 여러 방면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되는 이 시기에 이르러 현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적인 인력을 배출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연주거나 가르치는 일을 맡은 음악인들 이외에 음악요법사, 녹음 기술사, 음향학자, 오페라 연출가, 반주 실내악 전문가, 음악행정가, 음악 매니저 등은 날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이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음대는 획일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똑같은 과정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추구하지 못하는 물론이며, 음악교육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도 이런 점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은 자기가 흥미를 느끼고 또 재주가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교

육제도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와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연주에 흥미를 느끼고 남다른 재주가 있는 학생은 연주공부에 집중해야 하며, 음악 역사가 흥미 있으면 음악 역사에, 음악교육에 이바지하고 싶으면 음악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이다. 즉, 연주 전공 학생들은 실기 위주로 선발하고 교육하며 음악교육 분야나 역사 이론 분야는 실기 비중을 낮게, 그러나 그대신 각 과정이 필요로 하는 다른 공부 요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음대는 모든 학생이 근본적으로 같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음악적인 전문가가 되기도 미숙하고 학문적으로도 미숙한 학생들을 배출해 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획일성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학생들은 자기가 선택한 진로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음악을 전공하려면 언제든지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학력은 음악공부에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갖춰져야 하며 음악공부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음악은 그 특성 때문에 일찍이 음악가의 길로 들어서야 하지만 만약을 생각해서 높은 학력을 하나의 '보험'으로 유지하고 싶은 학생은 당연히 개인의 필요성에 의해 학과공부를 높이는 정도에 국한되어야 하며, 모든 음대지망생이 경쟁적으로 학과에 매달리는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학력의 비중은 낮추는 대신 음악적 수준은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려 그야말로 음악에 재능과 집념이 있는 학생들만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 자연히 학생선발도 지방대학 교수들이 여러 과제곡들을 충실히 다루게 한 다음 음악적 재주와 전문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음악 학위도 기능별로 세분화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출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각 대학도 연주과정을 중요시하거나 또는 음악교육, 작곡, 이론 등 집중하고 싶은 분야를 택해서 그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학교의 특징을 살리는 것도 바람직하다. ■